

기록 기억 전시 연계 프로그램 : 다 하지 못한 말들, 다 듣지 못한 말들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들의 삶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자 했던 제2의 증언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일시 3월 2일 - 3월 16일 오후 2시 (총 4회)

장소 서울시건축센터 2층 세미나실

박원순-정진성에게 듣는 '2000년 여성법정' 이야기

일시 3월 3일(일) 오후 2시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 각각 남측 대표검사와 한국위원회 부대표로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부터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한 일본의 전쟁범죄 단죄를 위한 시민법정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북으로 돌아간 '위안부' 그리고 박영심 이야기

일시 3월 2일(토) 오후 2시 | 강연자 김영

재일조선인 여성으로서 북한의 '위안부'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고민해 온 르포라이터 김영에게 북에서 여생을 살아간 '위안부'들 그리고 그 중 한 명인 박영심의 이야기를 듣는다.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과 이복순 이야기

일시 3월 9일(토) 오후 2시 | 강연자 이인순

故 김순악 할머니의 기탁금을 씨앗기금으로 삼아 2015년 대구에 개관한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 관장 이인순에게 역사관 건립과 축섬에서의 '위안부' 생활 후 대구로 돌아온 이복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오키나와의 '위안부' 그리고 배봉기 이야기

일시 3월 16일(토) 오후 2시 | 강연자 홍윤신

오키나와의 '위안부'와 위안소를 연구했고, 오키나와 미야코섬에 '위안부' 추모비 건립을 주도했던 홍윤신에게 오키나와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배봉기와 오키나와 '위안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특별 대담

I·SEOUL·U

박원순-정진성에게 듣는 '2000년 여성 법정 이야기'

일시: 2019년 3월 3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시건축센터 2층 세미나실

사회: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년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년 1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법정’)이 열렸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중심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장이었다.

2000년 여성법정을 개최하기까지 10년이 넘게 국제 여성·시민들의 노력이 있었다. 한국, 북한 등 아시아 여러 피해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1992년부터 ‘아시아 연대회의’를 열고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1998년 제5차 아시아 연대회의에서는 2000년 여성법정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00년 여성법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시민의 힘으로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폭력과 범죄를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5차 아시아 연대회의(1998년 4월 15일)

남북 공동기소

한국과 북한은 2000년 7월 필리핀에서 국제실행위원회가 열렸을 때 공동기소단을 구성하고 공동기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과거 역사에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남북 공동기소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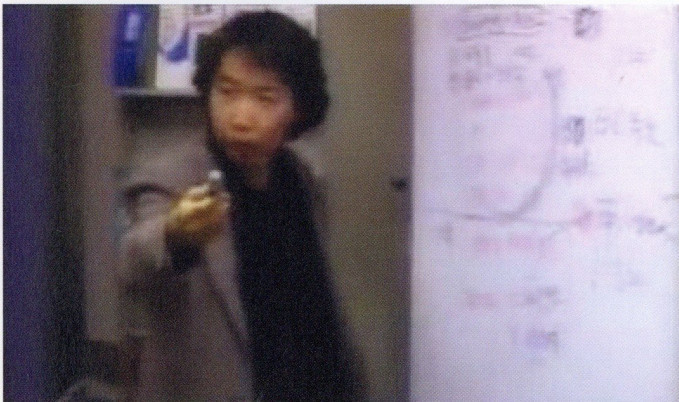


2000년 여성법정 북한 측 포스터

남북 공동기소 준비 과정

남북은 2000년 9월 타이완에서 만나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2000년 여성법정을 열기 직전 도쿄에서 만나 공동기소를 위한 조율 작업을 이틀간 압축적으로 진행했다.

각 피해국은 기소를 위해 각기 1시간 반의 시간을 할당받았고, 남북은 총 3시간의 기소 시간을 부여받았다. 기소 내용과 형식을 둘러싸고 남북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남북통일: 남북 공동기소를 조율 중인 한국위원회 부대표 정진성 교수

지연된 정의를 구하기 위하여



기소 요지를 발표 중인 박원순 남측 검사

“존경하는 판사단,
국제검사단 여러분 그리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고귀한 영혼을 지켜 오신
각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
남북의 공동 검사단 일동이
인사드립니다.”

“이 재판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첫째, 지연된 정의의 회복!
둘째, 민중에 의한 재판!
셋째, 여성을 위한 법정!
넷째, 식민지 민중이 제기하는 재판!”

박원순, 「2000년 동경역사여성법정 참가기」, 『역사비평』 (2001년 봄호)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

2000년 여성법정에서는 피해 여성 증인들 거의 대부분이 음성 변조 등 보호 조치를 거부하고 공개 증언을 했다. 이 공개 증언은 여성들의 용기와 강인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열여섯 살이었던 1944년 중국 한커우로 끌려갔다. 병사를 거부했다가 맞은 적도 있었다. 잔뜩 취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병사도 있었다.”

— 중국 거주 한국인 하상숙



“열두 살 때 일본의 ‘병원’ 같은 곳에 끌려갔다. 내가 피를 흘리며 우는데도 군인이 나를 강간했다. 내 몸을 보면 온 몸이 상처투성이다.”

— 북한 김영숙



“합판으로 만든 방들이 칸칸이 있었다. 방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다. 옆방의 숨소리까지 들렸다.”

— 한국 김복동



“일본군이 아무 말없이 떠나자 방공호에 숨었다가 중국군에 발견돼 포로수용소로 갔다. 1944년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임신한 상태였다.”

— 북한 박영심

판사단 전원 일치 유죄 판결

2000년 12월 12일 법정 마지막 날 판사단이 전원 일치로 피고인 9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피해 여성들은 크게 환호했다.

